쏘고 찌르고 갈랐다…한국, 첫날부터 금·은·동

공기소총 10m 혼성 박하준·금지현 은메달 '산뜻한 출발'
오상욱 남자 사브르 올림픽 첫 금…개인전 '그랜드슬램'
김우민 자유형 400m 동메달…한국 수영 12년만에 메달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첫 메달은 사격에서 나왔다. 펜싱에서는 한국 남자 사브르 개인전 사상 첫 금메달이 나왔고, 한국 수영은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 소식을 전했다.

지난 27일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에서 박하준(KT·24)과 금지현(경기도청·24)은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에 이번 올림픽 첫 메달을 안겼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중국의 성리하오-황위팅과 금메달을 놓고 맞붙었다.

금메달 결정전은 '승점 16'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녀 선수가 한 발씩 사격한 뒤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팀이 승점 2점을 얻고, 동점일 경우 양 팀은 각각 1점씩을 나누어 가졌다.

한국은 1라운드에서 2점을 가져왔지만 9라운드 결과 6-12까지 점수차가 벌어졌다.

13라운드에서 12-14까지 따라잡은 한국은 14라운드에서 21.1점을 합작했지만 중국이 21.5점을 쏘면서 금메달을 내줬다.

오상욱(대전시청·27)은 한국 남자 사브르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등극했다.

오상욱은 28일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개인 결승전에서 튀니지의 페레스 페르자니를 상대로 15-11승을 거두면서 정상에 올랐다.

앞서 32강과 16강에서 각각 니제르의 에반 지로와 이란의 알리 파크다만을 제친 오상욱은 8강에서 캐나다의 파레스 아르파를 15-13으로 이기고, 4강에서 이탈리아의 루이지 사멜레를 15-5로 꺾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결승까지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의 첫 금메달을 따낸 오상욱은 자신의 국제대회 개인전 '그랜드슬램'도 함께 이뤘다.

오상욱은 오는 31일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대전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과 함께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올림픽 3회 연속 우승 찌르기에 나선다.

수영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

김우민은 29일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수영 경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박태환에 이어 두 번째 한국 수영 메달리스트가 됐다.

예선전에서 7위를 기록해 1번 레인에 배정받은 김우민은 레인 특성상 비교적 강한 파도와 우승권 선수 레이스 견제가 어렵다는 등의 불리한 여건에도 예선전보다 좋은 페이스를 유지했다.

3분 42초 50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한 김우민은 2012년 런던대회 박태환의 은메달 이후 한국 수영에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을 안겼다.

한편, 이번 올림픽 한국 유도 첫 주자로 나섰던 이혜경(광주교통공사·28)은 첫판에서 한판패를 당했다.

세계랭킹 10위 이혜경은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유도 여자 48㎏급 32강전에서 18위 바불파트를 상대로 초반 공세를 펼쳤지만 경기 종료 1분 15초를 남겨두고 상대의 누르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패했다.

이혜경은 팔이 붙잡힌 채 등을 바닥에서 떼지 못했고 20초가 지나 한판패가 선언됐다.

개인전에서 아쉬움을 삼킨 이혜경은 8월 3일 열리는 혼성단체전 16강에 출전해 터키 선수단을 상대한다.

한국 펜싱 에페 대표팀 '맏언니' 강영미(광주서구청·39)의 개인전 도전도 32강에서 마무리 됐다.

강영미는 27일 그랑 팔레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넬리 디페르트(에스토니아)와 연장 접전을 벌인 끝에 13-14로 패하며 개인전 일정을 마감했다.

강영미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강영미는 지난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에페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2024 파리 올림픽 메달 순위

7월 27일(현지시간)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호주	3	2	0	5
2	중국	2	0	1	3
3	미국	1	2	2	5
4	프랑스	1	2	1	4
5	**대한민국**	1	1	1	3
6	벨기에	1	0	1	2
6	일본	1	0	1	2
6	카자흐스탄	1	0	1	2
9	독일	1	0	0	1
9	홍콩	1	0	0	1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성적 16위(금6·은4·동10)

자료: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 연합뉴스

"단체전까지 金 따고 편히 쉬겠다"

펜싱 사브르 우승 오상욱

한국 펜싱의 새 역사를 쓴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상욱(대전시청)이 기세를 이어 '단체전 우승'까지 약속했다.

오상욱은 28일 열린 대회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파레스 페르자니(튀니지)를 15-1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앞선 도쿄 올림픽 때 개인전 8강에서 탈락했던 오상욱은 두 번째 도전에서 한국 남자 사브르 선수 최초로 개인전 결승에 진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전까지 남자 사브르 개인전 최고 성적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와 2021년 열린 도쿄 대회 때 김정환의 동메달이었다.

경기 후 오상욱은 "엄청 기쁘지만 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단체전까지 금메달 따고 편히 쉬겠다"고 말했다.

오상욱의 메달은 이번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다. 이번 우승을 통해 오상욱은 메이저 국제대회 개인전 '그랜드슬램'도 이뤘다.

오상욱이 꼽은 고비는 파레스 아르파(캐나다)와 8강전이었다.

아르파는 국제펜싱연맹 랭킹 5위이자 올림픽 개인전 3연패를 이룬 아론 실라지(헝가리)를 제압하고 올라온 다크호스였다.

접전 끝에 아르파를 15-13으로 꺾은 오상욱은 "그 선수가 올라올 거라고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원우영 남자 사브르 대표팀 코치의 지도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안 좋은 생각도 들었는데 코치 선생님께서 뒤에서 많이 잡아주셨다. '넌 이길 사람이 없다', '네가 할 것만 하면 널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결승전도 쉽지 않았다. 14-5로 앞서며 손쉬운 승리를 챙기는 듯했으나 페르자니의 맹추격에 14-11까지 쫓겼고, 어렵게 마지막 점수를 냈다.

오상욱은 "정말 온몸에 땀이 엄청나게 났다. '여기서 잡히겠어'라는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났지만, 선생님께서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해주셨다"며 "'잘한다, 잘한다'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드디어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가 된 오상욱은 단체전 우승보다 기쁘지는 않다는 솔직한 심정도 털어놨다.

오상욱은 "단체전은 함께 뭔가를 이겨내고,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메워주는 그런 맛이 있는데 개인전은 홀로서기"라고 평가했다.

사브르 단체전에 크게 의미를 두는 오상욱은 우승 순간, 어펜져스(어벤져스+펜싱)로 함께했던 김정환, 김준호의 은퇴가 떠올랐다.

그는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내가 컸는데, 형들이 나갈 때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며 "멤버가 바뀌면서 정말 많이 박살 나기도 했고, 자신감을 잃기도 했다"고 웃었다.

오상욱은 31일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대전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과 의기투합해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이라는 또 하나의 새 역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결승전에서 오상욱이 튀니지의 파레스 페르자니를 상대로 경기를 하던 중 득점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을 '북한'으로…오상욱은 '오상구'로
IOC, 실수인가… 무신경인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잘못 표현한 것을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2024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소셜미디어에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일었다.

IOC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잘못 표현한 것에 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28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정강선 한국선수단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통해 "파리올림픽 개회식 오디오 방송에서 대한민국 대한체육회의 선수단이 잘못 표기된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IOC는 올림픽 기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 앞서 27일 파리 센강에서 진행된 대회 개회식에서 유람선을 타고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북한이라고 소개해 빈축을 샀다.

IOC는 X(구 트위터) 한국어 서비스 계정을 통해 "개회식 중계 중 한국 선수단 소개 시 발생한 실수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지만, 실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 또 IOC 공식 계정과 홈페이지에는 관련 사과문을 올리지 않아 반발을 샀다.

IOC가 개회식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조직위가 다시 한번 오기 실수를 해 뭇매를 맞았다.

조직위는 28일 새벽 진행된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 소식을 전하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된 오상욱(대전시청)의 영문 이름을 'Oh sanguk'이 아닌 'Oh sangku(오상구)'로 잘못 표기했다. 조직위는 오기에 대한 댓글이 달리자 이를 곧 정정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 성명을 발표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연합뉴스

박태환처럼…김우민도 '1번 레인의 기적'

자유형 400m 동메달

예선 성적이 좋은 선수가 결승에서 가운데 레인에 배정받는 이유는 레이스를 펼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선 성적이 좋지 않아서 바깥쪽 레인에서 경기하면 우승권 선수 레이스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선수들이 역영으로 만들어내는 파도가 풀 바깥쪽으로 강하게 치기까지 한다.

예선에서 7위를 해 결승에서 1번 레인에 배정받은 김우민(23·강원도청)은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한국 수영에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을 선사했다.

김우민은 28일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수영 경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50에 터치패드를 찍어 3위를 차지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예선에서 김우민은 3분45초52라는 예상 밖 성적표를 받았다.

"원래 오후에 컨디션이 좋다"며 경기장을 빠져나간 김우민은 휴식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을 재정비한 뒤 결승 무대에 등장했다.

결승에서 가장 바깥쪽 레인에 배정받은 선수가 좋은 기록을 낸 경우가 없지는 않다.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8위로 결승에 진출해 8번 레인에 배정받은 뒤 결승에서는 금메달을 딴 아흐메드 하프나우위(튀니지)가 있다.

13년 전인 2011년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는 1번 레인을 타고 우승을 차지한 박태환이 등장한다. 김우민은 자신의 우상인 박태환처럼, 올림픽 무대에서 1번 레인의 불리한 점을 지웠다.

또 황선우(강원도청)도 2022년 쇼트코스(25m)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8레인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다.

김우민은 "결승 1레인을 배정받을 때부터 동료들이 '한국이 1레인과 8레인에서 강하다'는 말을 해줬다. 그래서 더 힘을 냈다"며 "동메달을 따보니 1레인에서 경기하는 건 괜찮은 것 같다"고 웃었다.

김우민은 결승에서 출발 버저가 울린 뒤 0.62초 만에 출발해 결승에 진출한 8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반응속도를 보였다.

물에 뛰어든 뒤에는 언제 예선 때 무거운 몸을 보여줬냐는 듯, 4번 레인의 루카스 마르텐스(독일)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이날 3분41초78로 유일하게 41초대 기록을 내며 금메달을 딴 마르텐스는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1위를 놓치지 않았고, 김우민은 바로 그 뒤에서 350m 구간까지 2위를 유지했다.

가운데 레인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물보라에서 살짝 비켜난 김우민은 원래 기량대로 물살을 가르며 3분42초50으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예선보다 3초 이상 기록을 단축한 것이다.

비록 마지막 50m 구간에서 일라이자 위닝턴(호주·3분42초21)의 역영에 2위 자리를 내줬지만 마지막까지 따라온 새뮤얼 쇼트(호주·3분42초64)를 0.14초 차로 따돌리고 자신의 첫 올림픽 메달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김우민(맨 오른쪽)이 삼성 Z플립6로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